

우리의 오랜 종교적 전통인 유교 다시보기

신학자가 풀어 쓴 유교 이야기

✎ 문석윤 (경희대 철학과 교수)

책의 제목과 부제가 전하는 대로 이 책은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유교의 모든(?) 것에 대해 신학자가 쉽게 풀어쓴, 그리스도인을 위한 유교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유교의 기본적인 정신을 포함하여 중국과 한국에 걸친 유교의 역사를 개관하고, 현대에서의 유교 담론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기독교적 입장에서 유교 비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광범위한 내용을 300쪽 남짓의 짧은 분량의 책 속에 알차게 담고 있다. 꼭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유교 입문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저자인 배요한 교수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교수로서, 같은 학교에서 신학사(B.A.)와 목회학 석사(M.Div.) 학위를 받은 후, 성균관대학교에서 『기독교와 동양사상(1999, 동인서원)』이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기동 교수의 지도아래 유학을 전공하여 《유교와 기독교의 인간관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미국으로 건너가 보스턴대학교에서, 유교의 현대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면서 유교와 서양철학 및 기독교 사이의 비교종교학 혹은 비교철학적 작

업을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보스턴 유교'(Boston Confucianism)의 대표주자인 로버트 네빌(Robert C. Neville) 교수의 지도아래 《한국 종교 전통에 있어서의 신-인 관계 연구》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실로 신학에 근거를 두고 유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한 신진 학자로서 이러한 종류의 책을 집필하기에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다. 그가 일반인들을 위해 정성을 기울여 쓴 이 책은 유교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저자는 책의 <머리말>과 <서론>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두 정체성을 갖고 태어났음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통 종교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전통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그 결과로 자신도 모르게 비(非) 복

음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깊이 공감한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전통 종교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더 나아가, 전통 종교에는 일반 계시의 차원에서 자연 능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지식과 심오한 사상, 실천적 원리들이 담겨 있다고 말한다. 전통 종교의 가르침은 비록 온전하지 못한 파편적인 진리로서 직접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서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유교가 그러한 전통 종교 중에서도 인간이 가진 이성적 능력과 수행 노력을 통해 이론 가장 고상한 것 중의 하나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종교 전통이기에, 유교를 아는 것은 기독교 복음에서 강조하는 구원과 거룩한 삶, 그리고 일상 속에서 추구해야 할 경건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한편으로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현대의 다원주의 상황과 관련하여 정당화하고자 하였다. 그는 이정석 교수의 책 『세속화 시대의 기독교』의 내용을 인용하여, 절대진리와 윤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종교를 사용하여 인류의 급격한 부패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인정하는 가운데 타 종교와 협력할 필요성이 있으며,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책의 본론은 총 5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1부에서는 유교의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특성을 논하였다. 유교는 인간의 실존적 한계성으로서 “사사로운 욕심”을, 인간의 본질적 가능성으로서 “성인(聖人)의 경지”를, 그리고 도약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거경(居敬: 경에 거한다)과 궁리(窮理: 이치를 궁구한다)”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종교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각각이 기독교의 “죄”와 “예수를 닮은 삶” 그리고 장신대학교의 학훈(學訓)이기도 한 “경건과 학문”에 비교될 수 있다고 보았다. ‘거경’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바른 삶의 태도로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풀이한다면 늘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삶의 태도와 통하고, ‘궁리’는 단순히 지식의 양을 늘리

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큼 삶이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더 바른 모습으로 바뀌는 '성덕지학(成德之學: 덕성을 이루는 학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학문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교는 중국의 농업 전통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인(仁)과 예(禮)를 기본 가치로 설정하며, 인간 존재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수양(修養)과 천인합일(天人合一)을 강조하였다면, 서양철학은 그리스의 상업 문화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예의와 법을 기본 가치로 설정하며 인간의 개체성을 강조하고 수학, 과학과 논리학을 발전시켰다고 하여, 철학으로서의 유교의 특성을 서양철학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제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공자(孔子)로부터 맹자(孟子), 순자(荀子)의 초기 유학 사상에서 한당(漢唐) 시대의 유학을 거쳐 송명(宋明) 시대의 유학에 이르기까지의 중국 유교의 전개를 비교적 상세하게 개관하고, 청대(淸代)의 유학과 근대의 유학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에로의 유교의 전래에서 여말선초(麗末鮮初)의 주자학(朱子學), 그리고 목은(牧隱) 이색(李穡)과 양촌(陽村) 권근(權近) 등의 유학자를 필두로 퇴계(退溪) 이황(李滉)과 율곡(栗谷) 이이(李珥)의 유학 사상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조선 주자학의 특색으로서 '천인무간(天人無間: 인간은 본래 하늘과 다름이 없다)' 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선 후기의 반(反) 주자학적 사상과 실학(實學)의 대두와 서학(西學)의 수용과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로써 저자는 유교 발생에서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중국과 한국에서의 유교의 역사적 전개를 전반적으로 소개한 셈이다.

제4부에서 저자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유교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최근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입증하고자 하였고, 또한 현대 한국에서 한국 유교의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유교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제언하고 있다. 그는

서구 지성계에서 서구 문명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유교에 대한 관심을 소개함으로써 그러한 현대화의 긍정적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한편으로는 현대 중국에서 민족주의적 '신중화주의(新中華主義)'의 관점에서 유교가 재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섞어 언급하였다. 그와 함께 그는 최근 중국 기독교계에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배경을 설명하고 중국 선교를 위한 새로운 선교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제5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유교와 기독교 사이의 대화를 시도하였다. 유교가 다른 종교 전통에 비해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학문성을 강조하는 종교 전통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유교에서 배워야 할 점으로, 첫째, 매 순간 성실하고 공경한 삶의 태도로 내 삶의 올바른 변화를 추구하는 성덕지학을 지향한다고 하는 올바른 학문의 태도, 둘째, 개인 삶의 수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한 실천을 함께 강조하는 태도, 그리고 셋째,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유교적 영성(靈性)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들었다.

저자는 유교 문화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 중의 하나인 조상 제사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제사 혹은 제례는 '조상을 받들어 추모하는 의식 혹은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는 행사'라고 정의하고, 유교에서 제사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에 대해 인(仁: 孝)의 형식적 표현으로서의 예(禮: 祭)를 강조하는 사상적 측면과 그 종교로서 그리고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종교적 측면에서 각각 살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제사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다.

끝으로 저자는 유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점에 대해 논하였다. 그는 이점에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제삼(第三)의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철학적인 용어로 양자를 설명하는 방

식을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맨 처음에 서술하였던 유교와 기독교의 종교적 측면에서의 구조적 유사성과 함께 그 구체적인 내용상의 차이를 음미함으로써 양자 간의 본질적 차이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서술을 바탕으로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단호하게, 이른바 선교적 관점에서 유교에 대한 기독교의 변증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전제 하에서 기독교적 입장에서 유교를 비판하였다. 그것은 유교에 대해, 그리고 불교나 도가 사상 등 다른 동아시아 종교 전통에 대해, '인간이 스스로 주체적인 자각과 노력으로 모든 사욕 또는 죄를 극복하고 이상적인 인간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해 정직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영구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완벽하게 극복할 수 없다는 기독교의 답변으로부터 그들에게 도전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저자는 유교에 대한 그러한 근본적인 비판과 함께 한편으로 서구 신학의 인간론이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죄성'을 강조함으로써 '타락'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측면을 간과하는 문제가 있으며, 그것이 결국 구원론에서 칭의론(稱義論)을 강조하는 대신 성화론(聖化論)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명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인간의 본질적 가능성을 강조하는 유교의 인간 이해가 성경에서 바라보는 인간 이해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책이 우리의 오랜 종교적 전통인 유교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시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종교 전통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로 서술을 마쳤다.

전체적으로, 전통 종교 특히 유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 그에 기초한 대화를 강조하는 만큼 저자는 유교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세계관적 비판 보다는 그 긍정적 측면에 대한 서술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에게조차 전통 종교가 여전히 그의 삶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그에 대해 무지하거나 혹은 막연한 반감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 진단에 기초한 것이다. 언젠가 저자가 더욱 깊은 수준에서 유교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혹은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에 관한 중후한 저작을 선보일 것을 기대해 본다.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유교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비판, 혹은 진지한 대화의 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분들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16, 17세기 명(明) 나라에서 활약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가 쓴 '천주실의(天主實義)'(송영배 외 옮김, 1999, 서울대학교출판부)를 일독해 볼 것을 권한다. 또한 가톨릭 배경을 지닌, 송명유학과 중국종교 연구자로서 유교와 기독교 사이의 진지한 대화를 시도한 줄리아 칭(Julia Ching, 秦家懿)의 『유교와 기독교』(임찬순·최효순 옮김, 1993, 서광사)와, 칭 박사과 저명한 가톨릭 신학자인 한스 쿵(Hans Küng) 박사의 공저 『중국 종교와 그리스도교』(이낙선 옮김, 1994, 분도출판사)를 참조하시기 바란다. 또한 유교 및 전통 종교에 대한 세계관적 비판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안점식 교수의 『세계관과 영적전쟁』(1995, 조이선교회출판부)을 추천하고 싶다.



문석운 서울대학교 철학과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같은 대학원에서 《朝鮮 後期 湖洛論辨의 成立史 研究》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명지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고 있다. 논문으로 <유교와 기독교>(《신앙과 학문》 3권3호, 1998), “중국 사상의 생명관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21세기 생명문화와 기독교』, 2000, 콜란출판사) 등이 있다.